

내 아들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책머리에 6

자녀를 위한 기도 8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 / 마지막 혁명	13
세계는 나의 교실 / 스스로 생각해도 '멋있는 사람'	18
과감한 도전의 삶을 즐기라! / 거지 순례 전도의 추억	22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 찔마리로 가자!	28
난로와 같은 따뜻한 사람이 되라! / 촌부리의 환상	32
위인전을 많이 읽어라! / 미술 선생님과 미래의 슈바이처	38
어려움이 있을수록 꿈은 명확해진다 / 재수와 낙제, 거듭된 실패	42
모든 것을 100% 수용하라! / 역기능 가정과 치유의 은혜	51
모든 일에는 준비 과정이 있다 / 구원의 확신, 그 단순성과 복잡성	56
첫사랑의 감격에 빠지게 하라! / 서울대 복음화 선언	62
찬스에 민감하라! / 전도의 열매들	67
위대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 나의 스승들	71
자녀를 위한 십자가 / 어머니	79
영원한 낭만주의자 / 아버지	82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라! / 은혜의 순간들	84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 의사의 특권	87
제한된 거건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라! / 의대생의 추억	90
현실 문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 서연전과 백양로의 밤 /	97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히라! / 죽음과 삶의 문제 /	100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라! / 사회 초년생의 애환 /	107
책임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 서복후 시절 /	111
사랑의 대가가 되라! / 사랑의 추억들	115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라! / 조교 시절의 추억 /	124
영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켜라! / 사감 시절과 아가페 운동 /	128
성경적 지성을 회복하라! / 라브리 운동의 태동 /	135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 신학의 길 /	143
주님의 뜻이면 밀어붙여라! / 샬롬 교회와 공동체 운동 /	146
모든 시간을 극대화시켜 활용하라! / 군대 생활과 비전 키우기 /	152
거침 없이 기도하라! / 기도 응답의 연관성	159
체험적 건강론 / 소중한 경험을 활자화하라!	164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 주라! / 테니스 행복론	171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라! / 풍요 시대의 전도 방법	173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라! / 진새골 시절	176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창조적인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결하라! / 암환자와 인격 의학	184
꿈은 크게 생각은 고상하게 삶을 단순하게 / 대학 병원과의 싸움	193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 / 결단의 순간	196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 서초동 시대	200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 천사들과의 삶, 그 행복에 겨워	206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	209
새로운 사역의 지평 - 전인 치유 학교 /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211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 사랑의 기도 편지	
망하기로 결단하라! / 비행기에서 주신 아이디어	222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 의료의 질과 검진 능력	227
진리가 뼈에 사무치게 하라!/ 말씀 강해 사역 /	231
가라, 세계로! / 국제 사랑의 봉사단	233
꿈의 씨앗을 파보지 말라! / 호도애 인터내셔널 미션	237
미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 아! 김춘근 박사	242
아내를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만들라!/ 제 2의 신혼 여행	253
전문성과 영성을 동시에 추구하라!/ 사랑의 음악회	257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 월드 리더 클럽과 교육 혁명 /	262
경손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 필리핀 순회 진료 도중 일로일로에서	266
내 아들아 ! 세계를 품어라	274
♡ 아아! 이디오피아	
♡ 카투만두 골짜기의 기도 함성	
♡ 세계는 나의 교실	

사랑의 부담, 기도의 부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최초의 해외 봉사인 방글라데시 사역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중국계 미국인 의사로 OMF 산하 선교사 훈련 기관인 AMTI 의 원장을 맡고 있던 룡 박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동남아 선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친 그는 갑자기 저의 손을 잡더니 "이 부담을 저와 같이 나누지 않겠습니까?(Would you share my burden?)"라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짐을 저와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 세계의 선교 현장을 누비며 그곳의 절박한 필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기도, 그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금방 은혜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움을 주신 하나님,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을 아십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어찌 혼자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목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남이 못 본 것,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부담이자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깊은 필요를 보았는데 안 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웃들의 실상과 선교지의 급박한 필요를 알았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적 사역, 꼭 되어져야 할 일이 그냥 방치된 채로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짐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빛진 자요 복음에 빛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합니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 받은 은혜도 은혜려니와 가난한 세계의 이웃들로부터 받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부요가 그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갹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통로를 저는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부담과 사랑의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빚발치는 요청에 응답해야 할 기도의 부담과 사랑의 부담, 그리고 같이 은혜 받을 찬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봉사단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5-1 세화빌딩 3층  
국제 사랑의 봉사단  
TEL : 031)704-3914 / [www.lci.or.kr](http://www.lci.or.kr)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책머리에

뜻하지 않게 한 출판사의 부탁을 받고나서, 이 책의 출판을 생각하며 글을 쓴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병원을 이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날라 온 곳,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왜 나는 이곳에 와야 했는가? 아내가 유학 온 스코틀랜드의 12월, 북유럽의 겨울밤은 길기로 유명하다. 무려 17시간이나 되는 밤. 비발디의 겨울에 이어 알비노니의 아다지오가 잔잔히 깔리는 새벽, 원룸에 네 식구가 사는 이곳의 부엌 겸 식당 겸 거실에 애리, 의현, 의찬이가 잠들어 있다. 내핍 생활에 길들여진 사랑스러운 아이들, 애뜻한 감정을 느껴보는 건 오랜만의 일이다.

이 아이들을 보고나니 이제는 망설임 필요가 없어졌다. 몇 번을 망설였지만 더 이상 후퇴는 없다. IMF의 경제 신탁 통치라는 암울한 시대에 내 아이들을 포함한 차세대 주역들에게 희망의 폭탄을 던지며, 사랑의 혁명을 외치고 싶은 것이다.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다. 사랑 외에는 추구할 가치가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바뀌고 가정이 회복되고 세계가 변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고통 받는 세계의 이웃들을 부둥켜안고 땀과 눈물을 흘려본 경험 없이 사랑을 논할 수 없다. 암으로 고통 받으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들의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보지 않고서야 어찌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도록 허락하셨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가장 이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사랑은 자기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관계 형성이며 최종적 영향력이며 영적 도전이다. 나의 사랑의 행동이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나는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실이라는 체험적 교육론을 가르치고 싶다.

## 자녀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 드립니다. 이 아이가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추구하는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풍조 속에 안주하여 편하고 쉬운 길로 가는 대신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공부를 하게 하소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고통 받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학문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하소서. 대통령을 만나도 움츠려 들지 않고 거지를 만나도 우쭐대지 않는 당당함과 겸손을 아울러 갖추게 해 주소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되 엄격함에 유머 감각을, 유연함에 굳은 심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학교와 교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을 갖게 하사 아름다운 만남과 풍성한 인간관계를 통해 날마다 성숙하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기 보다는 남과 다른 점을 찾게 하시고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주고 품어 주게 하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매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스승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와의 우정을 아름답게 키워가게 하소서. 지킬만한 약속만 하는, 신뢰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정직과 진실의 위대한 능력을 속히 깨닫게 하사 거짓과 위선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게 하시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국제인으로서 세련된 매너를 지키게 하옵소서. 불리한 여건에서도 자기비하에 빠지지 않게 하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 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하기 보다는 듣기를 즐기며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고 양보와 포기의 가치를

아는 사려 깊은 성품을 갖추게 하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되기보다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열망하게 하소서.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하시되 너무 유행에 치우치지 않으며 원칙을 존중하되 융통성을 갖추게 하소서.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적인 감각을 갖추게 하사 메마른 삶을 창조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생활 속에 심어놓으신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는 환희를 맛보게 하소서. 멋과 품위를 알고 음악을 즐기며 독서를 좋아하는 '생활 속의 예술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다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100% 활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조건 새로운 것, 큰일을 찾기 보다는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소서. 바른 영성과 냉철한 지성과 풍요로운 인간성,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균형 있게 갖추어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항상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시간을 황금같이 아낄 줄 아는 자기 관리의 대가가 되게 하소서.

이 아이에게 역사의 흐름과 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넓은 안목과 포용력을 갖추게 하소서. 무엇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계 선교'와 '세계 경영'의 성경적 월드 비전을 가지고 온 인류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4. 11.

황 성 주

##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

### **마지막 혁명**

벌써 10 월인데도 아직 한여름인 것처럼 내 마음에는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오르곤 한다. 그만큼 이번 여름은 올림픽의 열기와 화염병의 불길 못지않게 뜨거운 여름이었다. 육 개월 전부터 나는 '사랑의 기도 편지'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번에 2,000 통이나 되는 편지를 독자들-사랑과 기도의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일이다.

사실 사랑의 봉사단을 이끌고 아프리카를 다녀온 지 열흘째 되던 날, 기도 편지를 쓰려고 시도했다가 마음이 탁 막혀 포기한 적이 있다. 그때의 감격과 은혜의 뜨거운 열기를 글로 쓰기에는 그 기억이 너무도 진해서 망설여졌던 것 같다. 글을 쓰는 일에도 때가 있다. 펜을 잡았다고 항상 글이 써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써야 한다는 긴박성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올해 내가 비행기를 탄 횟수가 벌써 43 회를 넘어섰다. 의료 봉사로 5 번, 집회 및 세미나로 3 번, 영국 방문 1 번 등을 비롯하여 러시아에 2 번, 인도에 2 번, 네팔에 2 번, 그리고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 필리핀,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에 1 번씩의 방문을 하는 등 12 개국 이상을 다녀왔다.

어린 시절 내가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처음 비행기를 탄 것은 1977 년 제주도 순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때였다. 그때의 감격과 흥분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비행기' 하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되었다.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컨디션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호기심은 피곤 속에 묻히고 여행 그 자체의 지긋지긋함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그것은 공항에서의 헤어짐과 만남을 결혼질하는 즐거움이다.

헤어지면서 아쉬워하는 모습도 정감 있을 뿐더러 자동문이 열리며 함박꽃 웃음을 머금고 환영대 앞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과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이들이 누리는 즐거운 해후는 정말 보기가 좋다. 더욱이 한 소녀가 쭉쭉 달려가 귀국하는 아빠와 뽀뽀를 하는 장면은 정말 아름답기마저 하다.

나는 사랑의 봉사단으로 섬김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자유인이 된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리고 배우고 깨닫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순회했던 사역에서는 힘이 들었다. 그 이유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즐거운 스트레스를 마음껏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티오피아의 벼룩과 세부 섬에서의 모기들이 그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없게 만든 주범들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말라리아에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기치 않았던 복병, 벼룩은 한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대적이었다. 무려 100 여 군데나 되는 물린 자국을 긁고 있어야 하는 괴로움에다, 하루에 10 여 군데씩 새로 물려야 하는 한심한 상황이 매일 전개되었다. 세부 섬의 모기는 모기향도 소용없는 강적이었고 밤새 가려움으로 온몸을 긁는 바람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세부 섬에서 평균 50 군데씩 모기에 물린 꿈나무들의 종아리를 보면서 곱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에 안쓰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 고아원 아이들과 밤새워 어울려 찬양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피부병이 많고 지저분한 차림새의 고아원 아이들을 멀리하며 노동 사역에도 형식적으로 임하는 등, 서로 어색해 하며 맨송맨송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어 마지막 날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이별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분명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작품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것처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곳의 아이들이 짝을 지어 'Deep Down'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행복해 하던 모습은 한 마디로 천사들의 모습이었다.

쓸쓸함에 절어있는 필리핀 세부 섬의 깊은 산 중에 있는 고아들을 찾아와 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며 자신도 행복해 하는 꿈나무들로 인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하나의 행복을 가지게 되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산상수훈의 황금률은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는 순종해본 사람만이 안다.

필리핀에서 귀국한 다음 날, 병원에서 환자를 보던 중인데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꿈나무 봉사대로 필리핀을 다녀온 후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자식을 잘못 키워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꿈나무 봉사대 소식을 듣고 고생이나 실컷 하고 오라고 보냈지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 달라져서 돌아왔어요.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과 태도가 너무나 바른 아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삶의 빛깔이 윤택해짐을 느낀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다녀온 아이들의 감격과 은혜는 줄어들겠지만 그 변화된 중심은 좋은 잠재력으로 남아 언젠가는 사랑과 섬김의 꽃을 피울 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하면서 나는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는 깃발을 내걸었다. 물론 이 구호는 대학 시절 신앙의 스승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이미 제시하신 비전이다.

고린도전서 13 장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가페 사랑'의 모티베이션(동기)이 없이 되는 일이란 결국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기 일이지 주님의 일은 아니다. 선교 사업과 선교의 본질적 차이가 여기에 있다.

'사랑이라는 불꽃에 의해 익혀진 성품' 없이 되는 일이란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 없이 되어지는 일은 끝까지 가다보면 주님의 디자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주님께 잠시 활용되기는 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디자인대로 되는 일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누구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 세계는 나의 교실

### 스스로 생각해도 '멋있는 사람'

왜 사랑의 봉사단을 다녀오면 삶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상에 관계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 세계의 고통 받는 이웃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리라. 아마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영적 필요만이 아닌 전인격적 필요, 그 필요의 응급 상황이 우리의 중심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 갔다 오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산 체형과 사랑의 터치,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 사랑은 응답이며 표현이다. 이 고통 받는 영혼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필요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면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동아프리카의 캄바족을 진료하면서 마음으로 통곡한 적이 있다. 그들은 약만 있으면 살 수도 있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수만 있다면...' '약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차라리 암이라면...' 진료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끝없이 줄지어 서있는데 일정상 진료는 끝내야 하고 우리가 가져간 약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이 평생 동안 의사의 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마사이족을 대하면 큰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된다. 맨손으로 사자를 잡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스럽다고 알려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실감하기도 했다.

또 나는 방글라데시에 처음 의료 봉사를 갔을 때 꾸리그람 주 게스트 하우스에 찾아온 주지사와 밤새 영어로 찬양하던 추억이 있다. 그것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지금도 사랑의 봉사단을 위해 기도하던 네팔의 고아들과 조이 하우스 아이들의 함성소리가 눈에 선하다.

그 외에도 필리핀에 갔던 꿈나무 봉사단과 너무나 정이 든 그곳 고아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못 가게 하려고 타이어에 펑크를 냈던 일, 헤어질 때마다 흘리던 아쉬운 눈물, 사랑의 봉사단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전 중인 소말리아를 지원한 특공대 봉사원들, 주님이 아니면 연출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밤새워 꽃을 피우던 촌부리의 밤...

사랑은 상처받기로 결단하는 것이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며, 옛 자아가 죽는 것이며, 성육신하는 것이다. 매순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만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모티베이션은 단순한 훈련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단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는 감격을 한번이라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때 느끼는 감격과 기쁨은 오직 주를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수직적 관계(하나님 사랑)와 수평적 관계(이웃 사랑)가 만나야 두 관계가 모두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가.

시각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면 옛날에 가졌던 시각이 놀랍도록 천박하게 여겨진다. 그리하여 주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를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되,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100% 활용하여 극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주를 위해 많은 일, 큰일을 하고 싶은

꺼지지 않는 열망이 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엔 무조건 일을 벌이는 스타일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스타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하나의 훈련 과정이리라.

나는 가끔 나의 삶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멋있다고 착각하며 행복에 젖곤 한다. 내가 주로 치료하는 환자는 암 환자들이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것은 하나의 진료 행위라기보다는 병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전인격적 싸움이며 영적 에너지의 소모라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처절한 싸움을 하다 훌쩍 떠나 순례자처럼 아시아, 아프리카를 누비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말씀과 전인 치유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다가 다시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와 왜곡된 사회 구조와 왜곡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 웃고 상처받으며 가정과 병원과 봉사단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갖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내가 선택한 것은 없으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궤도를 보니 사랑에 빛진 자로서의 삶이요 그 흔적은 이웃의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모든 혁명은 다 지나갔다. 진화론의 혁명, 산업 혁명, 프랑스 혁명, 공산주의 혁명, 뉴 에이지로 대표되는 문화 혁명,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철학 혁명...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망하게 끝나고 인간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다.

인류 최후의 혁명인 사랑의 혁명,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마지막 주자인 우리의 젊은이들의 21 세기를 기대해 본다.

## **과감한 도전의 삶을 즐기라!**

### **거지 순례 전도의 추억**

나는 무작정 떠나기를 좋아한다. 도전 없는 삶, 스릴 없는 삶은 정말 죽기보다 싫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사안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변화를 싫어한다.

종종 현상 유지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삶의 질이란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기 마련이다.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 세계는 나의 교실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직 배우겠다는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 이 땅의 젊은이는 마땅히 개혁과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슴 설레는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요즘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는 희망과 감격의 하루를 맞이한다.

1977년 여름, 심천 천막 수련회를 마치고 출발했던 제주도 순례 전도의 아름다운 추억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당시 서울대 CCC 회장이었던 나는 150 명의 학생을 이끌고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있는 미루나무 섬에서 대학생 3,000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수련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김준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강 가운데 있는 미루나무 섬 백사장에서 목사님은 "모든 불을 끄세요"라고 지시한 뒤, 캄캄한 백사장에 홀로 떠있는 초승달을

바라보며 "밤마다 뜨는 달이 이처럼 고운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 말씀은 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끔 폭풍우와 같은 사자후를 쏟기도 했지만 시종 조용한 감동으로 가슴에 와닿는 살아있는 메시지였다.

그 수련회를 마치고 곧바로 제주도로 순례 전도를 떠났다. 우리 팀은 5 명이었고 부족한 내가 대장을 맡았다. 지금은 어느 목사님의 부인이 된 자매(당시 숙대 CCC 회장)와 한 명의 신학생, 후배 2 명이 나와 한 팀이 되어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다.

목포에서 하루를 머문 뒤 배를 타고 8 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다. 처음 밟아보는 제주도 땅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생활의 격차가 있던 오지였다. 그 당시 수련회에서의 부실한 식사와 배를 탄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순례 전도를 출발했다. 가끔 담대함이 가져다주는 은혜는 상상을 초월할 경우가 많다.

거지 전도는 애월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명이 각각 흩어져 집집마다 사영리를 전하고 밥이나 반찬을 얻어오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날이 어둑해진 뒤, 만나기로 한 초등학교 교정에 모이니 각각의 양재기에는 콩보리밥, 멸치볶음, 김치 등이 담겨 있었다.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던 우리는 수저도 없이 손으로 음식을 먹어치웠다. 이 일은 훗날 순회 진료 사역으로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다니며 현지인들처럼 손으로 밥을 먹는 즐거움을 미리 맛보게 하신 섭리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시작된 순례 전도는 해안을 따라 돌다 중 산간 지방을 거쳐 다시 해안으로 나오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한번은 너무 피곤해서 부룻가에 쓰러져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자갈밭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피곤하면 자갈밭 위에서도 잘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골의 어느 집에서는 나그네 접대를 너무 잘해 주어, 걸게 상을 차려오는 덕분에 피곤한 몸을 회복하기도 했다. 바닷가 마을의 어느 시인 부부는 자기 집 안방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신혼 때 사용했다는 원앙금침까지 내주는 환대를 보이기도 했다.

한 번은 성산 일출봉 밑 풀밭에서 텐트도 없이 하룻밤을 잤는데 새벽녘에 어찌나 추운지 잠을 설친 적이 있다. 떨다가 아침이 되어 다시 가가호호 전도에 나섰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밥을 얻어먹는 일이 우선이 되고 말았다.

위기상황에 강한 내 체질 탓인지 아니면 밝은 성격 탓인지 밥을 얻는 일은 내 전공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어느 집을 방문했더니 젊은 주부가 미안해하면서 '밥은 없고 대신 라면은 어떨겠느냐'며 라면 4 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라면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라고 거절했더니 뒤에 있던 팀원들이 폭소를 터트렸다. '거지 주제에 밥은 먹고 라면은 안 먹느냐'며 핀잔을 던진 것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나는 밥을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슬람 신도들 중에는 걸인 전도자가 수만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다. 대접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고, 얻어먹는 입장에서 감사해 하니 자연 이야기가 통하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피곤한 몸이지만 순례자의 노래가 절로 나오는 판이었다.

그 경험을 되살려서 다음 해에는 19 인조 남해안 순례 전도 팀이 구성되었다. 경상도 진주에서 여수 애양원까지 7박 8일의 코스였는데 나는 그 팀의 창설자요 대장(거지 대장)이었다.

당시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돈 주고 음식을 사먹지 않는다.' '만나는 마을마다 가정마다 빠짐없이 전도 한다.' '돈 주고 차를 타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걸어서 간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전도도 하고 밥도 같이 얻어먹는다.'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등이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따로 보관했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출발했는데...

다음은 당시 기도 응답의 감격을 회상하며 썼던 글이다.

###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나의 열망에 대한 충족이 아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확실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진짜 자신의 필요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본질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더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열망이 없는 기도는 기복 신앙으로 그를 위험이 있다. 자기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소모적인 면이 많고 결국 제 풀에 지칠 수밖에 없다.

18년 전 나는 여름 방학 기간에 대학생 팀을 구성하여 남해안 지방을 순례하며 전도 여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19명의 형제자매들의 모든 돈을 모아 보관하고 무일푼으로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이른바 '거지 전도 여행'을 한 것이다. 진주에서 하동으로, 하동에서 광양으로, 광양에서 순천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누비며 전도의 기쁨과 청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던 순간들이었다.

가는 곳마다, 발걸음 닿는 마을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다. 돌씩 한 조를 이루어 집집마다 사영리를 전하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성령의 행진을 계속해 나갔다.

첫 번째 마을에서 각자 얻어온 밥과 반찬을 모아 허기진 배를 채우던 감격,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만난 산촌에 마침 교회가 있어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던 환희, 잘 곳이 마땅치 않아 경찰서 옥상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비에 잠을 깨던 소란함, 땅을 흘리며 고개를 넘어 기진맥진하던 순간 발견한 웅달샘에서 타는 목을 축이던 달콤함이란...

찌는 듯한 더위에 하루 종일 걷는 대원들을 위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시고 이따금 바람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을 마음껏 체험했던 황금 같은 훈련 기간이었다.

문제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접어들면서 지쳐 있던 서너 명의 대원들이 반기를 들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부정적인 무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도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느냐' '크리스천의 삶은 풍성한 삶이지 고행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었다. 물론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것이 당시 팀의 리더였던 필자의 의견이었다.

계속 논란이 일자 같이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합심 기도를 하고 나서 가장 열렬하게 반기를 들었던 형제에게 기도를 시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형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처음 정했던 거지 전도의 원칙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당시 주장과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기쁨 가운데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이후 대원들은 일치단결하여 그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변하는 데 그 묘미가 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생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비결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변화의 열망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찢마리로 가자!**

환자들을 대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남에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며 지낸다.'는 것이다. 자신이 남에게 상처준 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로 여기고 고민은커녕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 병이 나을 리 없다.

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집착하는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사랑은 받을 것은 기대하지 않고 줄 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에 빛진 자'라는 겸손한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면,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풍요로움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무의촌 진료라는 것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순례 전도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후에 사랑의 봉사단을 시작하는 뿌리가 되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탄복할 뿐이다.

내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 것은 1988년 1월로 의과대학 교수 2년째가 되는 해였다. 춘천의 베드로 정형외과 원장인 조은제 집사님이 사재를 털어 만든 아시아 구제 기금의 지원을 받아 8명의 형제자매가 의료 봉사를 위해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다. 방콕을 거쳐 다카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공항에는 처참한 몰골로 돈을 달라며 떼를 쓰는 아이들로 가득했고 때마침 방문한 슬럼가의 참상, 울드 다카 인구의 절반가량이 길바닥이나 역전에서 잠을 잔다는 선교사님의 설명... 거기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진료 사역을 했던 찢마리 민선 군수의 자량은 가관이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가난한 주 꾸리그람, 꾸리그람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찢마리. 고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찢마리"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가난을 자랑하는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짚마리는 방글라데시의 맨 북단에 있는 고장으로 자무나 강을 끼고 있었는데 연례행사로 홍수가 찾아와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었다. 자무나 강 가운데에는 많은 섬들이 있었는데 큰 섬에는 7~8 천 명 정도의 거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홍수만 나면 거의 모든 섬이 물에 잠겨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주민은 지붕 위로 피신해 토란 몇 개로 한 달을 버티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몇 개의 섬을 방문해 진료를 했는데, 처음 방문했던 지역에 있는 보건소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문을 연다고 했다. 그곳에는 의사가 배치된 병원과 보건소가 있긴 했지만 약이 없어 문을 열지 못하는 형편이라 했다. 먼지가 한 뼘 정도 쌓여 있는 책상을 치우고 들어가, 지금은 에티오피아에 계시지만 당시에는 방글라데시에 계셨던 의료 선교사 강원희 선생님과 함께 진료를 시작했다.

끝없이 몰려오는 환자, 부족한 의약품, 가져온 약으로는 어림도 없는 중환자들... 해야 할 일은 많고 부족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그 지역은 토양에 요오드 성분이 부족해서 갑상선 질환 환자가 많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기, 신경통, 피부병, 기생충, 중이염, 안질환 등이 많았고 X-ray 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환자들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기도 했다.

환자를 보다 지쳐 잠깐 밖으로 나왔다. 눈짓 하나만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따라 다녔다. 내가 아는 단어는 '깨모나초(안녕)'와 '발로발로(좋아좋아)' 두 마디였는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함박꽃 같은 웃음을 머금으며 나를 둘러쌌다.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은 한결같이 예뻐다. 비록 세수는 잘 안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크고 아름다운 눈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그 반짝이는 눈동자를 주시하고 있자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도 아니요 옷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노트와 책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날기만 하고 그냥 방치해둔 아이들. 한집에 부인이 서넛씩이고 아이들은 십여 명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들을 제대로 키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무조건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필요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나의 뇌리에서 그 아이들의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나는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온다. 내가 그들의 눈동자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였을까. 나는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싱가포르에서 OMF 국제 본부를 방문했다가 당시 그 기관의 총재였던 허드슨 테일러 3 세와 선교훈련원 원장인 닥터 룡을 만나게 되었다. 1 평밖에 안되는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는 허드슨 테일러 3 세의 겸손한 자세와 겸소한 생활양식에 깊은 도전을 받았다.

선교훈련원을 방문했을 때 당시 동남아 선교 현황을 설명하던 닥터 룡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I want to share my burden with you'라고 나에게 권면했다. 의사이면서 선교 행정가였던 그의 애절한 기도와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나올 때 나는 '사랑에 빛진 자, 복음에 빛진 자로서의 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랑에 빛진 자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부담을 끊임없이 가지는 것이 기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타락과 부패와 변질을 막고 의의 길을 가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난로와 같은 따뜻한 사람이 되라!**

## 촌부리의 환상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1992년 크리스마스 날,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세계는 나의 교실'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사랑의 봉사단(Loving Concern)을 창단했다. 그리고 열흘 후 사랑의 봉사단 제 1기 43명이 방글라데시 찰마리를 찾았다. 당시 사랑의 봉사단을 모집하는 포스터의 헤드라인은 '찰마리로 가자'였다. 나는 그때의 감격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든 형제자매들과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섬겼다. 놀라운 것은 방글라데시 음식을 맨손으로 먹고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잤던 43명이 20일 동안 한 명도 감기나 배탈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마쳤다는 것이다.

5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94년에는 4개 팀이 6개국을, 95년에는 8개 팀이 8개국을, 96년에는 19개 팀이 13개국을 섬기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믿음으로만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일이 정말 소중한 사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첫째는 다녀온 사람들이 월드 비전을 갖게 되며 섬기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변한다는 것과 둘째는 너무도 신실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 그런 확신을 갖게 하였다.

Y-WAM의 창설자인 로렌 커닝햄은 35년 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의 대륙을 덮는 환상을 보여 주셨다고 한다. 그것을 통해 그는 주를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 큰 파도와 같이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갈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며, 그 사건은 태국 촌부리 센터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당시의 감격을 기록한 내용이다.

## 촌부리의 사랑과 눈물

나는 비교적 눈물이 없는 사람이다. 풍요로운 인간성이 결여된 절름발이 인격 탓인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별로 울어본 적이 없다. 제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 후에도 한두 차례 울면서 기도해 본 기억밖에 없을 정도니 아직도 설익은 상태인 것 같다.

눈물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무슨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희귀한 일이 태국 촌부리에서 일어났다.

촌부리 선교 센터는 김정웅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 20년의 열매요 걸작품이다. 30만 평의 대평원 위에 교회, 목회자 훈련원, 고아원, 기도원, 마약재활원 등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사랑의 봉사단 1기부터 심어놓은 나무들이 센터 입구에서부터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있다. 아름다운 열대의 꽃들이 제각기 화사함을 과시하고 있고, 사랑의 봉사단 4기가 만든 잔디 야외 공연장도 그 아름다움에 한뼘을 하고 있다. 마약재활원 앞에는 그곳 형제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만든 인공 호수에 밧모 섬이라는 조그만 기도처까지 있어 풍치가 한층 돋보인다.

이곳에서 어젯밤에 있었던 사랑의 봉사단 8 개 팀의 보고대회 및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은 연합 수양회의 꽃이었다. 마치 8 개의 수채화를 모은 한 폭의 병풍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감동의 파노라마가 쉼새없이 전개되는 환희의 연속이었다.

2~3 주의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이곳을 찾아 소말리아, 케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시베리아, 동유럽, 베트남 등을 누비며 나뉘던 섬김의 감격, 사랑의 기쁨이 놀라운 폭발력으로 펼쳐졌다. 말씀과 기도과 교제와 간증을 나누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보석 같은 시간들이었다.

그 간증의 시간들이 좋았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타문화권을 경험했다거나, 베푸는 삶의 기쁨을 맛보았다거나, 스릴이 넘쳤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그 과정에서 '내가 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았던 옛날의 나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과 모든 변화의 근거는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간증을 기쁘고 가슴 벅차게 만들었다. 사실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해지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하찮은 것이 돼버리고 만다.

처음 사랑의 봉사단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아웃 오브 타이랜드'라고 불렀다. 제 3 세계의 비참한 지역에서 고생과 땀으로 지든 단원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었던 안식의 장소였고, 그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들은 아침마다 해돋이 기도회를 가졌는데, 숙소에서 2Km 정도 떨어진 기도 동산에서 바라보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하려면 새벽녘에 일어나야 했는데, 전날 봉사로 진이 빠진 고단한 몸을 끌고 일어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아침 행군은 피로 회복제가 되었다. 특히 가로수가 되어버린 길 양쪽의 티크 나무숲과 더불어 새벽과 아침의 경계는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느꼈다. '비록 지금은 한 개의 팀이지만 장차 전 세계에 파송될 수많은 팀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었다. 세계를 섬기고 주의 젊은이들로 촌부리를 채우는 것이었다. 그 꿈이 비록 축소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어젯밤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하면서 나는, '왜 내게는 로렌 커닝햄에게 보여 주셨던 것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문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는 시편 구절이 입술에서 절로 나왔다.

어젯밤 엄청난 감격으로 보여주신 비전의 확인은 미래지향적 실제 상황이라는 데서 더욱 확고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더더욱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경이로운 인도하심은 하나의 걸작품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의 봉사단의 비전을 확인할 줄이야. 비록 고통이 수반된 꿈이라 할지라도 꿈의 열매는 항상 감미로운 것이리라.

이제 파타야 해변의 물놀이를 끝으로 헤어져야 할 순간들이 다가오고 내일이면 2 개 팀을 남기고 모두 귀국하게 되는데 갑자기 소환 명령이 떨어졌다. 내일 새벽 2 시에 이곳을 떠나 다카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정도 이별을 나눌 충분한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신 감격과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교차해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시편 133 편의 첫 구절이 마음을 적신다. 더구나 열흘 전부터 동행하던 인도 팀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애정은 뜨거움 그 자체였다.



아낌없이 줌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할 텐데 눈물이라니... '사랑은 상처받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눈물 없는 사내가 울어버린 사건이 생긴 것이다.

미어지는 가슴에 열대의 밤은 깊어가고 이른 새벽에 떠나야 하니 잠을 자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그동안 정들었던 형제자매들에게 방금 전부터 엽서를 쓰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 지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랑한다는 고백의 편지를, 미안함과 슬픔이 뒤섞인 채 써내려갔다. '더 사랑하지 못함' '더욱 섬기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시린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편지 쓰는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느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간이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마치 큰 이별인, 임종의 순간을 미리 맞는 듯한 느낌이다. 내가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언제부터인가 '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따뜻한 난롯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와 내 주변의 모습이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따뜻한 눈물의 사람이고 싶다.

오, 주님. 이 밤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996. 1. 30.

첫 새벽에 태국 촌부리에서